

수업 비평적 관점을 통한 중등 국어 수업 사례 연구

정재찬*

<차 례>

- I. 수업 비평적 관점에 대한 이해
- II. 중등 국어 수업 비평의 실제
- III. 결론

I. 수업 비평적 관점에 대한 이해

1. 수업 전문성 신장과 수업 비평

수업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수업 혁신, 수업 장학, 수업 평가, 수업 컨설팅, 수업 클리닉 등등 다양한 이름과 성격의 연수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교원 평가제의 도입이 한몫을 하고 있음은 거의 분명해 보인다. 수업 공개 의무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보기에 가장 문제적인 것은 평가의 잣대가 분명할 것을 요구하게 될수록 수업이 획일화될 우려가 커진다는 데 있다. 수업 공개에 따

* 한양대학교

른 평가 척도는 양적 기준이 되기 쉽고, 그 경우 교사는 차별적 전략보다 표준화 전략을 구사하는 편이 보다 안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 수업은 그 학급 고유의 특수한 맥락, 환경 조건, 변인 등은 무시되기 십상이다.

다음은 동료교사에 의한 수업평가지표(2009년도 교육부 예시안)이다.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지표	세부 판단 기준
수업 준비	교재 연구	수업연구에 꾸준히 노력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상시 수업과 관련된 교재 연구를 충실히 한다. • 창의적 수업 방법 고안을 위해 노력한다. •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 새로운 수업매체에 대한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지도 계획	수업설계가 정교하게 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설계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다. • 수업설계가 교과 특성을 고려한다. • 학습 주제에 알맞은 학습 형태를 제시한다. • 수업 목표가 구체적이고 타당하다.
	학습자 특성 이해	지도계획에 학생 수준을 반영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계획에 학생의 학년 특성을 반영한다. • 수업계획에 학생의 선수학습 경험을 반영한다. • 수업계획에 학생의 교과에 대한 태도 및 흥미를 반영한다. • 수업계획에 학생의 학습수준을 고려한다.
수업 실행	수업 환경 조성	수업 분위기를 좋게 유지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 정서에 도움을 주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 학습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다.
	학습 동기 유발	동기유발을 잘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학습문제 도출에 적합한 내용으로 동기 유발한다. • 흥미로운 질문, 호기심 등을 활용하여 내적 학습 동기를 자극한다. •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동기화 시킨다.
	수업 안내	수업 안내는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시작 시 도입을 적절히 하고 있다 • 학습목표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한다. • 단위 차시별 수업 흐름을 자세히 안내한다. • 활동별 수업내용을 자세히 안내한다.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지표	세부 판단 기준
수업 실행	교수 방법	교수 방법이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기본 학습준원이 잘 되어 있다. • 교과 특성에 맞는 수업 방법을 활용한다. • 수업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 중요한 수업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상호 작용	학생과의 상호 작용이 활발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수업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학생들의 의견을 학습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 수업 방해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한다. • 칭찬과 격려가 적시에 이루어진다.
	교수 발문	교수 발문이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수업 참여 의욕을 높이는 발문을 한다. • 학생들의 사전 지식과 경험을 고려한 발문을 한다. •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발문을 한다. • 학생의 우발적 발언, 오류 답 발언에 대한 처리가 효과적이다. • 다양한 유형(확인, 탐구, 유도, 추구)의 발문을 한다.
	교수 태도	교수 태도가 충실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에 대한 열의가 있다. • 교수 태도가 안정되고 자신감이 있다. • 교사의 사용언어, 발문, 태도가 적절하다. • 학생의 발언을 경청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학습 자료 활용	학습자료 및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내용과 목표에 적합한 교수 매체와 자료를 활용한다. • 학습 자료를 적시에 활용한다. • 수업 매체를 이용한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 능숙하게 수업 매체를 활용한다.
	학습 정리	학습정리가 잘 이루어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한 내용을 확인한다. • 판서의 양이 적당하다. • 적절한 양의 과제를 제시한다. • 수업 정리 시 차시예고를 한다.
평가 및 활용	평가 계획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평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평가 시기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 평가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한다.
	평가 내용 및 방법	평가 내용 및 방법이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내용이 수업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 평가 방법이 적절하다. •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적절히 활용한다. • 다양한 평가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평가 결과 활용	평가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결과를 모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 학생들의 학습오류에 대한 추가 지도가 이루어진다. • 평가 결과를 자신의 수업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 평가 결과를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한다.

이 내용 중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항목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수업 평가 기준이 구체적인 교과, 곧 국어 수업 평가 기준으로 적용할 때는 어떤 상세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기준에 따른 평가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얻어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표준화는 전문성의 최저 기준일 뿐이다. 수업의 표준화된 형식은 개별화되고 최적화된 수업의 기본틀이지 그 자체가 목표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평가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면, 교사로서는 융통성이나 창의성, 개별성과 독창성을 발휘하기보다는 주어진 목표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교수 전략만 추구할 수밖에 없게 마련이다. 수업의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요구하는 교원 평가가 이렇게 귀결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아니, 표준화가 목표라면 전문성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옳다. 표준을 지키는 사람에게 전문가라는 명칭 자체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페셔널리즘은 표준, 곧 기본의 준수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의 창안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더욱 기준의 세분화를 통해 전문성의 신장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어과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모 시도 교육청의 연수 프로그램 중 평가 지표별 교수요목 가운데 ‘수업의 도입’과 관련한 부분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과정개요	
목적	수업 목표의 명확한 제시 및 학생들의 동기 유발 등을 통해 수업의 도입 부분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
대상	중등학교 국어 교사
과정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의 도입 부분에 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국어과 여섯 영역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의집중 전략을 설명하고, 수업 내용에 적합한 전략을 선정할 수 있다. • 국어과 여섯 영역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동기유발 전략을 설명하고, 수업 내용에 적합한 전략을 선정할 수 있다. • 수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수업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과정 내용	과목명	학습 내용	교수 방법	평가 방법	교육 시간
	과목1 수업 도입 부분 주요 활동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집중의 필요성 동기유발 4요소(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성취감)의 이해 및 필요성 수업목표 제시의 중요성 선수학습 확인의 필요성 	강의	지필 평가	1hr
	과목2 학습 분위기 조성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점 행동 파악 방법 배경 지식 활성화 전략 선행 지식 보충 지도 방법 	강의 · 실습	지필 평가/ 성과체크 리스트	1hr
	과목3 주의집중 및 동기 유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집중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머교수법 활용 —경험 활성화 전략 —시범 활동 활용 주의집중 전략의 응용 동기유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를 활용한 동기유발 기법 —호기심 유발 기법 —수업의 기대, 관련성, 성취감 제시 —적절한 보상 제시 방법 구안 동기유발 전략의 응용 	강의 · 실습	행동관찰 태도 설문지/ 성과체크 리스트	1hr
	과목4 수업 목표 제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적인 수업 목표 제시 방법 학습 내용 개요 제시 방법 조직화된 수업 안내 기법 	강의 · 실습	지필 평가	1hr
〈설문결과 도출된 그 밖의 교수요목 내용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환경 점검 시범 보이기 전략 친근한 분위기 조성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퀴즈문항 개발 능력 SPOT 기술 신세대 문화의 이해 			

이러한 지표와 교수요목들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란 것이 얼마나 고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인지 잘 보여준다. 이 교수요목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이해에서 평가 결과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무려 60개(중복 포함)의 분절된 세부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표는 그 중 5개 과목에 해당할 뿐이다.

그러나 수업에 대한 분석적 이해만큼 우리가 수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 수업은 분석적 단위의 합으로만 그 성취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수업은 유기체와 같은 속성이 있어서 부분이 부분에 영향을 주고, 같은 교수 행위도 학급에 따라 달라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수업의 표준적인 형식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형식주의적 잣대로 작용될 경우 수업의 생명성은 사라지게 된다. 수업은 매우 구체적인 대상과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교사는 수업의 형식에 정통해야 하지만, 자신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그 형식을 벗어나 새로운 형식을 창안해야 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사는 예술가와 흡사하며 수업은 예술 텍스트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업이 예술이라면 이에 대한 평가는 분해보다는 비평의 방식을 취함이 타당해 보인다. 평가적 관점과 비평적 관점의 주요한 차이점은 교사의 수업 행위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평가적 관점은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주어져 있고, 효율적인 교사의 수업 행동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교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동하는가를 판단하고자 한다. 따라서 수업 장학은 표준적인 기준을 적용한 양적이고 공학적이며 처방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이 된다.

이에 비해 비평적 관점은 교사를 이와 같은 탈숙련화(脫熟練化)된 존재로 보지 않는다. 교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가르치는 존재이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표준화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수업도 똑같이 진행되지 않는다. 오늘날 교육학 연구들은 교사들이 만들어내는 교실 수업의 이런 차이들에 주목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 비평은 교사의 이런 측면에 주목한다. 교사는 주어진 설계도를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는 공원(工員)이 아니라 환경의 제약 속에서 나름의 자율성을 발휘하여 수업을 창조해 가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의해 생산되는 수업 텍스트는 예술 텍스트에 비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 또한 예술 비평적 성격을 띠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¹⁾

수업의 의미를 해석하고 중국적으로 교과서의 규범적 기준에 비추어 좋은 수업을 평가하는 작업은 고도의 비평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그것은 자신이 지각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표상하는 행위를 동반하게 마련이다. 이처럼 수업 현상 속에 내재된 질적 특성에 주목하고 그것을 그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표상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하게 되면,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비평은 객관적 증명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인문학적 비평의 차원에 가깝게 된다. 이는 교육 연구를 사회과학적 엄숙성에서 인문학적 상상과 유연성 쪽으로 다소간 끌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수업 비평이란 교육 텍스트이자 일종의 문화 예술 텍스트로서의 수업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아 기술과 해석과 평가를 주축으로 행하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글쓰기로 규정한 바 있다(정재찬, 2006 : 397). 또는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구성해 가는 수업 현상을 하나의 분석 텍스트로 하여 수업 활동의 과학성과 예술성, 수업 참여자의 의도와 연행, 교과와 사회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수업을 기술, 분석, 해석, 평가하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글쓰기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이혁규, 2008). 이러한 정의는 더욱 정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의 동의하에 다양한 수업 비평의 실체가 전개되고 그로부터 더욱 적절한 방향을 선취해가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 첫째, ‘비평’이란 용어가 주는 부담감이다. 현장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반응을 보면, ‘비평’이란 용어가 주는 부담감과 거부감이 만만치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비평’은 곧 ‘비판’을 연상하게 하여 수업 평가란 용어보다 도리어 더 큰 두려움을 나타내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학 예술계에서 비평이란 매우 다양한 폭과 자장을 드러낸다. 어떤 때는 작가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는 장이기도 하고, 때로는 해설적 성격을 강조하여 독자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을 통해 격렬한 논쟁을 유발하기도

1) 이에 관해서는 이혁규(2008)과 정재찬(2006)을 참고할 것.

한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 비평은 해당 텍스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대단히 꼼꼼하고 섬세한 읽기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수업 비평의 중핵은 해당 수업 텍스트에 대한 철저한 이해적 구성물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다. 수업 비평은 기술과 해석이 주가 되며 그에 기초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글쓰기라 봄이 타당하다. 이 점은 강조해 마땅한데, 기존의 수업 장학은 수업 텍스트를 꼼꼼히 읽고 거기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수업 텍스트의 질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업 비평에서 말하는 평가는 교육 내용이 교수학적 내용 지식으로 어떻게 변환되었는지, 교사는 어떤 의도와 맥락에서 그렇게 했으며, 그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과 결과는 어떻게 드러났는지 등등을 기술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²⁾

둘째, ‘비평가’는 누구인가? 현재까지는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들이 학교 현장 수업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비평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수업 비평이란 장르의 발생이 강단에서 비롯된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일 뿐이다. 교과교육 현장에 대한 교과교육 학자들의 관심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수업 비평의 유일하거나 유력한 길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만 지속되면 외부의 교수학적 권위자가 평가를 내리는 형태로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 실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연구자들이 교실 수업의 진실을 알려면 교사와 학생들이 교실 뒤에서 수업을 관찰하는 연구자가 외부자로 인식되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의 투입이 요청된다. 따라서 이런 모델보다는 교사-비평가가 상호 비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모델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 최근 연구에서는 수업 공개와 비평보다는 수업 공유와 상호 비평의 자발적 모임을 강조하는 추세이다.³⁾

2) 지난날의 수업 장학이나 수업 연구물들을 보면 교과교육의 언어를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체크리스트는 그 수업이 국어이든, 수학이든, 체육이든 별로 달라지는 바가 없다. 조영달(2000)은 교실 수업의 현상 형태와 관련하여, 교수법적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과 교육과정 수행 지식(curriculum enactment knowledge)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전자는 학습의 주제와 이슈를 학습자의 특성과 교수 학습을 위한 전략에 맞게 구성·재조직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과교육학자와 일반교육학자의 연구 초점을 구분시켜 주는 좋은 범주의 하나가 된다.

셋째, 수업 비평이 꼭 글쓰기의 형태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수업을 기술하기 위해 수업 내용을 전사하는 것부터가 엄청난 부담이고, 해당 수업에 딱 맞는 언어를 찾기 위해 비평가는 적잖은 시간과 노력을 바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선 교사들이 수시로 행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수업을 공유한 이후, 합평회를 통해서 서로의 비평적 안목을 나누며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도 허용할 만하다. 다만, 글쓰기의 강제가 없을 경우, 합평회가 아니라 간담회 형식으로 변화하면서 책임지지도 않을 순간순간의 단상만 오고갈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수업을 관찰할 동안에 세밀한 관찰 노트를 작성하고, 수업을 동영상 자료로 확보하여 언제든 다시보기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합평회 또한 수업 당일 날보다는 일정한 시기가 경과한 다음, 정리된 생각들을 가져와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 일부 지역 교사 모임에서는 수업 동영상 자료를 공유한 가운데 각자 글쓰기 형태의 수업 비평문을 가져와 토론에 임하는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그 글쓰기 형태와 방식은 예술 비평가의 그것처럼 독창적인 글쓰기 가능하도록 자유롭게 열려 있어야 한다.

2. 국어 수업 연구와 비평의 지향점

한동안 국어 수업 현장에 대한 국어교육학계의 관심과 대응은 미진한 편이었다. 국어과의 교과교육학 측면에서 보면, 교육과정이나 평가 등에 비해 수업의 국면은 연구의 조명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그 주된 이유는 수업 연구가 현장 연구의 핵심임은 잘 알지만, 연구의 핵심으로 삼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큰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어교육학계에서는 국어 수업 연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 2005년 한 해만 해도 국어교육학회에서는 “국어수

3) 대표적인 예로 천안 지역 교사 모임인 ‘다운’이라는 공동체를 들 수 있다. 온라인(<http://cafe.daum.net/mtrteachers>) 활동을 기반으로 수업 비평과 관련한 각종 연수와 워크숍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업, 어떻게 볼 것인가”를, 초등국어교육학회에서는 “국어 수업 관찰과 비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학회지에 특집으로 게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국어 수업 현상 연구에 값하는 예로는 박태호(2005), 신헌재(2005), 이정숙(2005), 최지현(2005) 등을 들 수 있다.

국어 수업 연구로 주목할 연구로는 수업 사례 연구를 통해 수업 전문성 신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박태호의 일련의 연구⁴⁾를 들 수 있다. 또한 국어 수업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정숙(2003), 이재승(2005), 노은희 외(2006) 등이 있고, 국어 수업 비평과 관련해서는 이정숙(2005)도 주목할 만하다.⁵⁾

하지만 국어 수업에 관한 연구들은 초등 국어 수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수업 단위 분석을 토대로 여러 사례를 귀납하여 일반화를 추구하는 논문의 형태가 대세를 이룬다.

초등 국어 수업이 대부분인 것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 집단의 특성과 패러다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초등국어교육 연구자 집단들은 일찍부터 교과내용학보다는 현장 연구 쪽으로 관심을 돌려온 편이고, 더욱이 초등국어교육 현장은 활동 중심의 수업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또 수업 공개에 대한 저항이 적은 편이어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관찰과 분석에 값하는 사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교과내용의 교수학적 변환이라든가 교수내용의 학문적 점검과 같은 부분은 소략해지는 경향이 있다.

국어과 내용의 교수학적 변환을 중심으로 중등 국어교육 수업 사례를 비평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 글은 그런 점에서 의의와 한계를 안고 출발한다. 입시 위주의 중등 국어 수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평은 일상성에 대한 기술이란 점에서는 의의가 있겠지만 비평에 값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 이번에는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대안중학교의 실험적인 국어 수업 사례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았다. 대안학교라는 특수성이 있지

4) 박태호(2008a), 박태호(2008b), 박태호(2008c), 박태호(2008d)를 볼 것.

5) 이외에도 교사의 문법 지식 설명하기를 중심으로 다룬 김은성(2009), 국어 수업의 도입부를 중심으로 다룬 김승현·박재현(2010) 등도 주목할 만하다.

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운 형식의 국어 수업을 보일 수 있어 수업 전문성 신장과 관련한 모델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비평의 결과가 일반화되기는 힘들다는 단점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화는 원래부터 수업 비평이 지향하는 바와는 거리가 먼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이 글은 대상에 대한 현상학적인 인식을 통해 한 개의 수업 단위가 갖는 국어교육적 함의를 풍부하고 포괄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목표인 만큼 분석적인 논문식 글쓰기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다만, 오늘날 국문학 연구와 국문학 비평의 경계가 해체되는 경향이 있듯이, 이러한 글쓰기 행위가 갖는 작은 의의가 인정되길 바랄 따름이다.

이제 구체적인 수업 장면에 대한 비평을 보일 차례다. 이번 수업은 경기도 소재의 모 대안 중학교에서 행해진 한○○ 선생님의 1학년 국어 수업으로 전통적인 교과서 독본 중심의 수업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 만일 교사를 ‘텔런트(연기자)’ 형과 ‘프로듀서(연출가)’ 형으로, 즉 화술과 연기력이 뛰어나고 수업 대본을 처리하는 데 재치와 개인기마저 갖춘 교사를 텔런트 형이라 이름하고, 학습 자료의 준비 및 수업 진행상의 구성과 조직에 뛰어난 교사를 프로듀서 형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면⁶⁾ 이번 사례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한○○ 교사의 수업은 후자의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선생님의 개인적 기질이 텔런트와는 다소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아마도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제어한다고 보는 것이 진실에 더 근접한 진술이 될 것이다. 그는 스태프와 진행자 이상의 몫을 결코 원하지도, 추

6) 물론 이런 이분법은 문제가 있다. 텔런트 형과 프로듀서 형 ‘교사’가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동일한 교사가 상황과 목적과 대상에 따라 때로는 텔런트 형으로 때로는 프로듀서 형으로 하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둘이 통합되어 구현되는 ‘교사’와 ‘수업’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반드시 교사의 기질이나 재능에 따른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교육에 대한, 수업 사태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더 결정적일 수 있다. 반드시 그래야 할 대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교사의 ‘교수’ 행위보다 학생의 ‘학습’에 비중을 두는 교사들은 프로듀서 형 수업을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구하지도 않는다. 그 흔한 애드리브조차 별로 구사하질 않는다. 그는 명석을 깔아줄 뿐이다. 연출가답게 그의 수업 자료는 다양하고 흥미롭게 철저히 준비되어 있으며, ‘생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안배마저 유연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차갑거나 기계적인 모습을 연상하면 큰 잘못이다. 선생님은 친구처럼 따스하고, 학생에 대한 애정과 수업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초임 교사의 모습 그대로이다.

다만, 연출이 중요한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 비평은 카메라의 초점을 교사의 직접적인 교수 행위보다 그가 마련한 수업 교재와 그에 따른 학생들의 활동 쪽으로 옮겨야겠다. 특히 이번 수업은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교재, 곧 학생들의 활동지로 진행되고, 그 전개 과정 또한 각본에 매우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 장면만큼이나 대본, 곧 교재에 대해 이해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량이 꽤 많긴 하지만 활동지를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보여준 다음, 교재와 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및 활동을 분석하면서 이 수업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바를 하나하나 짚어 보기로 하겠다.

II. 중등 국어 수업 비평의 실제

1. 도입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은 ‘통합교재 : 고정관념’ 단원의 활동지이다. 여기서 통합교재라는 것은 한○○ 선생님 자신의 변에 따르면, “교과를 넘어 삶의 문제를 다룬 주제를 통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국어 영역을 통합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삶과의 연관성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 이를 위해 국어 교과의 경계를 넘어 삶의 다양한 장르와 매체와 소재들을 주제론

적으로 통합하는 것. 다른 하나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영역별 분절 활동을 통합하는 것.)

첫 번째 활동지는 이렇게 시작한다.

국어 대단원	통합교재 2. 고정관념-1			6
소단원	날자, 날자, 고정관념을 넘어 날아보자꾸나!			
1학년	반	번	이름 :	

날자. 날자. 고정관념을 넘어 날아 보자꾸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모두 옳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 모두 옳다고 생각 하나요?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진실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을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믿어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남성보다 불평등한 면이 있지요. 이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판단을 진실이라고 오래도록 믿어 왔던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이는 어른보다 못하다고만 여기지요. 하지만 아이들의 생각은 고정되기 이전의 생각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른의 생각보다 더욱 자유롭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우리가 보지 못해왔던 진실들이 숨어있답니다. 기존의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항상 학교에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도 가봅시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동안 못보고 지나쳤거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물들의 새로운 모습들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그동안 ‘고정관념’이라는 새장 속의 새처럼 우리만의 세상에 갇혀 세상을 판단하여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새장을 나와서 날아봅시다. 여러분 자신만의 상상한 날개를 달고 ‘고정관념’이라는 새장을 나와서 저 푸른 하늘로 날아봅시다. 자, 이제 그 첫 힘찬 날개짓을 시작해볼까요?

- 7) 이러한 기획은 긍정적이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전제는 있어야 한다. 첫째, 기존의 영역별 활동이 통합적 언어교육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모든 시간이 다 통합적이지도 단지 무게 중심만 다를 뿐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옳다. 그렇게 실천되지 않아서 문제이지, ‘쓰기’ 시간은 ‘쓰기 활동 중심’으로 듣기·말하기·읽기가 통합된 시간으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삶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그래서 종전의 편협한 교과 교육관을 극복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과와 의의 자체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교과와 전통적 경계 설정과 분할이 폭력적인 면도 있지만, 그 관행의 합리성도 인정되어야 하며, 그 양면성은 말 그대로 지양 극복되어야 할 사항이지 대체되거나 전복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이 쓴 교재가 아니라 손수 쓴 교재이니 책임감과 애정이 남다를 것이다. 띄어쓰기와 맞춤법은 물론 글의 내용이나 구성이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부담도 상당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글에도 손을 보아야 할 곳들은 여전히 발견된다. 그래서 기존의 교재를 비판하긴 쉬워도 막상 자신이 교재를 만들고 나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고백들을 선생님들로부터 듣게 되곤 한다. 하지만 필자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발전하는 편이 백 배 낫다는 쪽에 서 있다. 교과서가 기성품이라면, 그래서 누구한테나 맞지만 누구한테도 딱 맞는 것은 아닌 것처럼, 선생님이 손수 만드신 활동지는, 기계로 만들지 않아 군데군데 울이 성기는 곳이 있더라도, 당신의 학생들에게 딱 들어맞는 맞춤책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⁸⁾

이 상자 안의 글을 선생님은 학생을 지명하여 읽힌 다음, 마지막 단락은 직접 읽으셨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의 목표 인식은 자연스럽게 된 셈이다. 도입 활동은 무엇으로 할까? 사실, 고정관념과 관련된 자료는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아서 선택이 힘든 경우가 아닐까 싶다. 선생님은 EBS 동영상 자료를 선택하였다.

[들어가기] 보이는 것이 모두 진짜는 아니다.

1. 눈의 착각

—여러분의 눈은 언제나 진실만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과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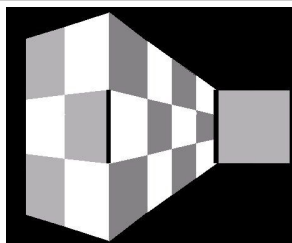
—영상출처 : EBS 지식채널e “눈의 착각” 편

<http://www.ebs.co.kr/HOMEPAGE/?progcd=0003176>

2. 여러분의 눈은 언제나 진실만을 보여 주고 있을까요?

8) 사소해 보이지만, 이 점 하나만은 지적해 두고 싶다. 선생님은 소단원의 제목을 이상(李箱)의 <날개>에서 따왔지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그것은 별 의미가 없었으리라는 것을. 그것은 원본을 모르는 이들에 대한 패러디의 운명과 같다.

〈1〉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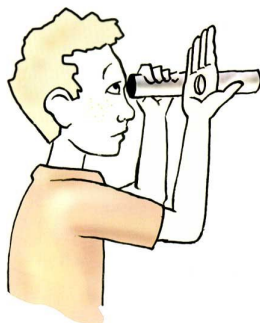
앞쪽 모퉁이의 검은 선과 뒤쪽 모퉁이의 검은 선 중 어느 것이 더 길어 보이나요?

〈2〉 활동



“젊은 여자인가요, 노파인가요?”

〈3〉 활동



눈에 말은 종이를 댄 후 오른쪽 눈은 말은 종이를 통해 왼쪽 눈은 아무것도 없이 5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물체를 바라보세요. 그런 다음 말은 종이를 대지 않은 눈앞에 왼손을 가져와 보세요. 왼손의 손바닥이 어떻게 되어 물체가 보이게 되나요?

눈의 착시를 다룬 자료들은 상당히 많다. 당장 인터넷을 뒤져봐도 착시 현상만 다룬 블로그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EBS 자료는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주요한 착시 현상들이 아주 실감나고 재미있게 소개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업 도입에 딱 알맞은 정도의 분량으로 잘 편집이 되어 있다. 미디어 시대에서 수업의 성공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잘 구축하고 탐색하고 선택하는가 하는 능력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아이들은 탄성을 연발한다. 이런 자료를 보다 보면 말 그대로 내 눈을 의심하게 될 정도로 되며 심지어 자신이 바보가 되는 느낌마저 든다. 그래서 아이들은 동영상 자료의 자막을 위대한 교훈처럼 가슴 속에 새겨 두려는 것처럼 보인다. “보이는 것이 모두 진짜는 아니다.”

이쯤 되면 학습 동기 유발과 수업 목표 인식은 다 이루어진 셈이나 다를 바 없다. 물론 이 장면을 보는 내내, 착시 현상과 고정관념이 딱 들어맞는 관계인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비유나 유추란 작업의 속성이 늘 그런 가능성은 지니게 마련이니 별로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듯했다.

다만 이 동영상 자료에는 직선이 곡선처럼 보이는 식의 시리즈와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흔히 쓰이는 로빈(Robin)의 술잔 그림, 즉 형상과 바탕이 반전되면 그림 속의 술잔이 마주 보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로 보이는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성격이 판이하다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전자는 직선인데 곡선처럼 보았으니 눈의 착각이요, 잘못이라 할 수 있겠지만, 후자는 착시가 아니라 단지 어디에 관심을 두고 보느냐 하는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잘못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쉽게 말해 전자가 ‘틀린’ 거라면, 후자는 ‘다른’ 것이다. 선생님의 유추대로라면, 그리고 이 활동 자료를 본시 수업 내용과 더욱 밀접하게 활용하고자 한다면, 고정관념도 위의 두 가지 방식대로 구분해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또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착시 같은 현상은 인간의 눈과 인식의 한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적 존재로서 인간의 인식적 위대함을 증명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또한 정지 화면의 연속을 동영상으로 인식하는
 눈 덕분에 우리가 만화 영화를 즐길 수도 있음에 착안한다면 이러한 현상
 을 통해 오히려 고정관념의 긍정적 측면까지 살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를 심화 단계에서 활용하게 되면 반전의 반전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 정도면 족했다고 본다. 하지만 비디오만 틀어 주는 정도로
 는 스스로에게 안이하게 여겨졌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동영상 자료와 거
 의 유사한 자료를 주고 실제 활동해 보도록 하신다. 여전히 신기하기는
 하나, 사실 <활동1>과 <활동2>는 앞에서 구분한 두 가지 시리즈의 판박
 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조금 복잡해 보이고 새로운 활동인 <활동3>
 에 아이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충
 격적이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손바닥이 땀 뚝 뚝 나오니 말이다.

그런데 이 활동은 사람에 따라 쉽지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시간
 도 생각보다 많이 흘러갔다. 이번 시간이 과학 시간인가, 수업 주제가 착
 시 현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도입 단계 전
 체의 비중이 과했다는 것이 솔직한 판단이다. EBS 자료와 이 자료, 둘 중
 에 하나만 택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자료를 버릴 줄 아는 것도 지혜요,
 용기다.⁹⁾

2. 전개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수업이다. 먼저 텍스트를 읽는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뭐니 뭐니 해도 ‘보아뱀’ 에피소드만큼 어른들의 고정관념
 을 통렬히 고발한 작품도 드물 것이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도 딱 알맞은 탁월한 선택이다. 분량은 A4 한 장짜리.

9) 실은 한○○ 선생님의 수업지도안 초고를 보면 이것도 꽤나 많은, 아까운 활동 자료들
 을 버린 것이긴 하다.

학생들은 각자 조용히 이 텍스트를 읽고 선생님이 새롭게 나눠 주신 문제지에 답을 한다. 문제지는 다섯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4번까지는 주로 내용 파악을 위한 것이다. 그다지 어렵지 않은 듯 학생들은 쉽게, 그리고 열심히 답을 쓴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5번이다.

[내용 파악을 위한 토의]

5. 위의 이야기처럼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이 좌절된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나는 어떠한 생각에서 그러한 독특한 생각을 했는지, 그러한 생각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시범보이기—

나는 레면에 느끼한 것이 좋아서 레면에 케첩이나 치즈를 넣으면 맛있다고 했다가, 어른들한테 ‘장난하냐’며 혼났던 경험음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분식집에서 치즈레면이나 치즈라면이 메뉴로 나오고 아이들도 많이 사먹는다고 한다.

주어진 문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는 글쓰기. 이것은 매우 필요한 활동이면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활동이다. 쓰기 수업을 보면 방법적 지식을 일러 주든가 모델을 보여 주든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텐데 쓰라는 지시만 있고 정작 어떻게 쓰라는 안내는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에 비해 보면 한 선생님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시범 보이기’를 해 놓은 대목이 눈에 띈다. 아이들도 쉽게 용기를 내어 격실격실 잘도 쓰는 눈치다.

하지만 역기능도 있다. 때로는 ‘시범’이 해방의 모델이 아니라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시범 보이기’처럼 주로 ‘먹을 거리’ 이야기가 대세를 이룬다. 곰국에 김 넣어 먹기, 허니 머스터드에 케첩 섞어 먹기, 삼겹살을 케첩이랑 마요네즈에 찍어 먹기, 콜라에 핫 소스와 치즈 가루 뿌려 먹기 등등. 아이들의 반응은 즐겁지만 이러다간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싶을 때쯤……

“어릴 때 우산을 쓰고 가다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 당시 발명가가 꿈이었는데 언니랑 같이 잘 보이는 비닐을 뒤집어쓰고 눈이랑 코랑 입이랑 뚫어서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선생님이랑 친구들 앞에서 엄청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발명품 대회에 써서 냈는데 예선을 통과 못했어요. 친구들이 놀려서 발명가의 꿈을 포기했어요.”

“예를 들어 36×9를요, 저는 9×36으로 했더니 어른들이 바보 같은 짓이라 했어요. 근데 진짜 실수 많이 했어요.”

첫째 아이는 좌절이란 면에선 문제가 요구한 것에 합당하지만 사람들의 비난이 고정관념에서 온 거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둘째는 어른들의 고정관념이란 점은 맞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한 셈이 되므로 둘 다 <어린 왕자>를 읽고 답하는 문제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편이다. 이런 발표들에 대해 선생님은 긍정적인 피드백만 할 뿐, 적극적인 평가는 하질 않는다. 아마도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발표를 자유롭게 하게 하려는 의도이리라. 하지만 다음 경우는 어떠한가?

“옛날예요, 언제나, 지금도 그런데요, 공부해서 필요없……. 공부해서 할 것도 없고, 좋은 대학 나와서 어차피 그냥 뭐 직장 얻고 끝나는 거니까 공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가요 항상 욕먹고 씹히고 그래서 안 좋았어요.”

어쩌면 이 학생이야말로 문제가 요구한 대로, 자신의 독특한 생각이 고정관념 내지 사회의 통념에 지배당한 경우를 바르게 답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실 장면에서 보면 어딘가 불안해 보이거나 보다. 선생님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반문을 하신다. 선생님의 반문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학생이 조금 수그러들며 “필요한 거 같은데…….”라고 하다가 이내 “그런데 영어 같은 건 정말 해야 하나?” 하며 다시 반문을 한다. 아이들과 선생님 다 함께 크게 웃는다. 웃고 넘어갔지만 이것은 우리가 고정관념에 대해 가르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고정관념의 양면성을 잘 나타내 준 사례라 하겠다.

<어린 왕자>를 마치고 난 다음, 또 다른 한 쪽의 글을 읽는 활동이

이어졌다.

[관련 글 읽기 2]

(가)

벼룩은 지금 2번재에서
살아보니 이젠 2년 넘게입니다

벼룩은 60cm이상
크게 자랐습니다.

01 벼룩은 30cm
높이의 유리컵 안에
가두면...

벼룩은 유리컵 이젠
저장소에 머리를
부딪습니다

나름은 28cm정도의
크기로 줄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리컵을
저장소 7리터에서
28cm만 두었습니다

벼룩들을 병 속에 넣으면 벼룩들은 쾅다. 그 병의 뚜껑을 닫으면 벼룩들은 뛰어오르면서 병 뚜껑에 부딪힐 정도로 세게 쾅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벼룩들은 계속 쾅 것이고, 계속 뚜껑에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한참 후에 뚜껑을 열면 병뚜껑까지 부딪혔던 벼룩들이 병 밖으로 뛰어오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벼룩은 병뚜껑 높이 이상으로는 더 이상 뛰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지그 지글러, 「벼룩 훈련법」, 『정상에서 만납시다』에서

(나)

키가 몹시 크다는 이유로 낮은 구두만 신고 몇 십 년을 살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너무 땅에만 달라붙어 있었다고 생각되어서 평소보다 2센티미터쯤 굽이 높은 구두를 사 신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늘 멍해 보이는 김씨의 얼굴이 약간 높은 각도에서 보면 의외로 예리한 표정을 감추고 있더라는 것에서부터, 과도처럼 밀려와 나를 압도하던 팔차선 도로의 자동차 물결들도 2센티미터만 위에서 보면 조잡한 장난감 대열처럼 왜소하게 파악되더라는 것까지, 달라 보이는 풍경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주 조금만 하늘 가까이 갔을 뿐인데, 너무 조금 눈의 키를 높였을 뿐인데, 시도한 것에 비해 주어진 인식의 변화는 한동안 나를 휘청거리게 할 것 같다. 눈의 높이야 당장이라도 굽갈이를 하면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정신의 높이를 2센티미터, 아니 1센티미터 높이는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만큼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바쳐야 할 눈물과 상처는 얼마여야 할까.

—양귀자, 「2센티미터의 진보」, 『길 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내용 파악을 위한 토의]

3. (가)에서 벼룩은 안타깝게도 더 이상 유리병 밖으로 뛰어 나오지 못하게 되었네요. 한편, (나)글에서 말하는 이는 단지 2센티미터쯤 굽이 높은 구두를 사 신음으로써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군요. 이 둘의 차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지 생각해서 적어봅시다.

역시 이번에도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이다. 만화까지 곁들인 센스가 예상되지 않다. 헌데 두 편의 글이 한데 묶인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가)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창출해내야 한다는 맥락의 글이다. 여기서의 초점은 성공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의 폐해다. (나)는 굽갈이를 통해 키를 높였을 때의 인식상 변화를 경험하면서 고정관념을 넘어섰을 때의 정신적 이득을 생각하게 해 보는 글로서, 주제는 정신적 진보를 위한 분투에 있다.

언뜻 보면 두 글 모두 벼룩과 굽처럼 작은 것을 소재로 삼고, 높이와 키를 문제 삼으며, 변화를 위한 노력이 주제인 것 같아 매우 유사한 듯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막상 비교와 대조의 초점이 썩 선명하지는 않은 것이다.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허긴 이래야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이 역시 (가)의 ‘벼룩’은 뚜껑이 사라져도 인식하지 못했으니 ‘착시’의 예에, (나)는 동일한 사물이 달리 보인 것을 말하고 있으니 ‘관점’의 예에 가깝다고 볼 수는 없을까? 그 둘 중 하나로 초점화하든가, 둘을 병렬적으로 조직화하든가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

사실, 이 텍스트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번과 2번의 답을 이야기하다가 선생님은 마치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키팅 선생님처럼 학생들에게 책상이나 의자 위에 올라가 보라고 한다. 그럼 평소에 보던 교실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바닥은 깨끗해 보이지만 천정이나 형광등 갓이 그러한지 살펴보라고 하신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책상 위에 올라섰다. 그 다음에는 바닥까지 내려가 보도록 요구하자 아이들은 생각보다 교실이 더럽다며 난리들이다. 물론 이런 활동의 의의는 (나) 글에서처럼 시각과 관점의 변화가 세상을 얼마나 다르게 보이게 만드느지를 몸소 체험하게 하는 데 있다. 아이들은 즐거워했다.

이번 경우에는 아이들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모른다는 게 오히려 다행한 일이었다. 그들은 이 활동을 참신하게 여겼다. 하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볼 때도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것은 단지 관점의 변화를 체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중 책상 위로 올라간다는, 금기와 고정관념을 깨는 행위 자체에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몸이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선생님의 의도도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도를 학생들은 눈치 챘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필자는 과연 학생들이 3번 문제에 어떻게 답할지 자못 궁금해졌다. 학생들이 정리한 답은 대충 다음과 같다.

- 시도한 것에 비해 인식의 변화는 너무너무 크다.
- 고정관념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생긴다.
-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면 깨기는 힘들지만, 고정관념을 깨면 우리는 그만큼 진보할 수 있다.
- 정해진 틀에서만 행동하고 보기보다는 그 틀을 깨고 나오면 더 많은 변화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나쁜 사람을 다른 눈으로 보면 착하게 보일 수 있다.

기특한 아이들. 중학생이라지만 1학년이 된 지 고작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초등학생 티가 다 사라져 보인다. 다만 필자의 욕심일까, 정신의 높이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투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를 역설한 양귀자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선생님도 학생도 그 구절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보인다.

3. 발전 및 심화

어떤 면에서 수업은 또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도입 이후에 읽기 활동이 주로 사실적, 추론적 사고를 요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상상적, 창의적 사고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련 글 읽기>, <내용 파악> 등의 소제목 자리 대신에 드디어 <활동 과제>라고 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곧 이어 보겠지만 모둠 활동과 쓰기 활동이 강조 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활동 과제 1] 고정관념을 넘어 날아봐~!

우선, 고정관념을 깨는 몇 가지 문제를 우선 풀어볼까요? 아래 문제를 잘 읽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되, 창의적으로 대답해보세요.

- ※ 고정관념을 넘어, () 안을 채워보세요.
- (1) 산토끼의 반대말을 아는 대로 적어보세요.
(시범 보기) 산토끼-죽은 토끼
- (2) 얼음이 녹으면 ()이/가 된다. (단, 물은 제외할 것)

마치 새롭게 동기 유발 단계에 들어선 듯, 비교적 가벼운 위밍업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1번 문제는 아이들한테 참신할 것도 없는, 실은 진부한 문제에 속한다. 마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처럼, 어른들만 못 알아볼 뿐, 아이들한테는 식은 죽 먹기와 같다. 그래서 답은 창의적이긴커녕 기계적으로 술술 쏟아져 나온다. “집토끼, 바다토끼, 알칼리토끼, 염기토끼, 끼 토산, 들토끼, 죽은 토끼” 등등. 몇몇이 새로운 답을 시도해 보지만 역시 웃음만 불러일으킬 뿐. 허탈해질 때쯤 한 아이의 창의성이 드디어 터져 나온다. “판토끼!”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환호성이다.

그렇다면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 물을 제외하라니깐 엉뚱하게 ‘콜라’, ‘포카리스웨트’ 등이 등장하기도 한다. 첫눈에도 과학자를 꿈꾸는 듯한 아이는 계속 “액체화 상태가 된다.”, “용액이 된다.” 같은 답을 내놓고 있지만 아까보다는 낫다. “착한 사람이 된다(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변해서).”

란 답이 나오고, 그러자 한 학생이 “봄이 된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한다. “바다가 된다(병하의 얼음이 녹아서).”라는 답을 시초로 유사 답안들이 봇물을 이룬다. “섬이 잠긴다.”, “지구 종말이 된다.”에서 “둘리가 태어난다.”에 이르기까지. 잠시 시들할 때쯤 아까 ‘판토피카’의 주인공이 “술래가 된다.”라고 답을 하자 또 다시 환호성이 일어난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학생들에게 ‘얼음 땡’ 놀이를 물어 보라.

다음 활동 과제로 넘어가 보자. 학생들의 활동이 아연 열기를 띠기 시작한다. 특히 다음 1번 문항은 모둠별로 성냥개비를 갖고 머리를 모으는 활동이니 분위기가 더욱 고조된다.

※ 고정관념을 넘어, 아래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 (1)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현이는 길이가 동일한 직선 여섯 개를 가지고 정삼각형 4개를 만들었다고 한다. 현이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 (2) 최근에 데뷔한 화가 길상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멋진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말'을 그린 것인데 신기하게도 향기가 나는 말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향이 나는 물질도 그림에 묻히지 않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그림이 가능했는지 상상해서 적어보세요.

이 활동을 통해 선생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번 문항은 성냥개비가 주어지는 순간 문제가 쉬워진다.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면 비교적 쉽게 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모듬은 삼각뿔 모양으로 문제 해결을 해낸다. 그들은 삼각뿔을 만들어 놓고서 피라미드 모형이라고 설명한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의 상식으로 말하자면, 피라미드는 사각뿔이다. 괜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님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삼각뿔이야말로 원래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기대한 ‘정답’일 것이다. 하지만 정답을 못 찾았는지, 아니면 더 기발한 것을 원했는지 아이들

은 다른 답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한 모둠의 아이는, 모둠 구성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 있게 발표한다. 그는 그냥 평면에 삼각형 두 개를 그렸을 뿐이다. 그러면서 보기에 따라 삼각형을 역삼각형으로 볼 수도 있으니 하나가 두 개 꼴이므로 모두 4개를 만든 셈이라고 주장한다. 아이들은 ‘천재’라며 환영한다.

다른 한 아이의 경우는 조금 심각했다.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비범한 기운이 엿보이기도 하는 그 아이는 성냥을 부러뜨려 정육각형을 만들고 그 대각선 일부를 연결하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이 정삼각형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성냥 여섯 개를 부러뜨려 사용했기 때문에 정답으로 간주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고 했고, 선생님은 성냥을 부러뜨리는 아이디어가 고정관념을 깬 거라고 감싸주고자 했다. 아이들도 인내심을 갖고 배려를 하려 하였지만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선생님이 이렇게 불을 끄신다.

지금 우리는 수학 시간은 아니고요,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 고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설명을 정확하게 들을 수는 없지만, 아까 그 어린왕자 이야기처럼 ○○이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진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삼각뿔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거창한 수학조차 필요 없는 상식의 문제이다. 이것은 선생님의 말과 달리 사실 수학 시간에도 다룰 만한 일이 아니다.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다. 왜 우리가 이것을 국어 시간에, 그것도 도입도 아닌 단계에서 이토록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단 말인가? 뒤에 다시 지적하겠지만 이것은 통합교재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문제는 마치 선덕 여왕의 모란꽃 일화를 떠올리는 우문현답식 발문이다. 말의 그림에 나비를 그려 넣겠다는 탁월한 답이 나온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된단던 바로 그 학생이다. 어른들이 보기엔 시인이 될 법한 아이인데 오히려 아이들은 그다지 신중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어

딘가 정형화된 냄새가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그런 답은 보아뱀도 못 보는 기성세대에나 참신하지, 이미 그런 종류의 활동을 초등학교 시절 부터 익히 해 온 아이들에게는 일종의 클리셰에 불과한 것이다. 그보다 아이들은 주로 기발한 답에만 반응을 나타낸다.

- 달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말에서 향기가 난다. 말하면 입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입냄새를 그려서……
- 그 그림은 ‘말을 그린 것이다’라고 했고 향기가 ‘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말 이름이 향기. 향기는 나는 말. 결론 페가수스의 한국식 이름은 향기이다.
- 그림을 냄새 나는 말 털로 그려요.
- 말 등에 짖을 하나 그려 주세요. 짖에 향기라고 써 주세요. 말에서 향기가 나고 있잖아요.

오해하지 말라. 지금 아이들이 수업을 장난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아이들은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업에 임했다. 하지만 창의적 사고를 요하는 수업들, 특히 학생들의 자유로운 반응을 고무하는 수업들은 이런 식으로 종결될 때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교사나 학생들이나 행복해 할 때가 많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답답하고 획일적인 수업에서 벗어난 대신 무엇을 얻고 있는 것일까? 창의적 사고와 유희적 사고는 그 자체로 과연 선하고 옳은 것일까?

한 선생님이 의도했던 바는 고정 관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로부터 얻게 될 삶의 변화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선생님 스스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라.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 중의 하나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각도를 달리한다든지 시간을 무한정하게 늘려본다든지 공간을 무한정 확장할 때 전혀 새로운 시각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힘든 일이 있어. 아, 내일 수학 숙제에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막 고민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넓혀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에 힘든 것이 있지만 그게 중학교 1학년 전체의 생활 안에서 그 어려움은 뭘까. 중학교 전체, 중고등학교 전체, 아니면 내 전체 인생으로 봤을 때, 내가 오늘 힘들어하는 것이 내 그 생각의 영역을 넓히면 그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는 문제가 거꾸로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생각에 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여기서 여러 가지 언어의 유희, 말장난, 요런 비슷한 것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표현도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활동은 뒤를 넘겨보세요.

결국 문제는 삶이다. 이번 수업의 최종 과제 또한 고정관념의 정치학, 혹은 윤리학이라 이름 붙일 만한 세계로 나아간다. 이번 역시 그것의 내면화 여부는 학습 주체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의 관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의 활동 과제이다.

[활동 과제 2] 우리 주변의 고정관념과 관련한 나의 경험담 쓰기

여러분 주위의 친구를 한번 바라보세요. 처음 그 친구를 보고 느꼈던 첫인상과 지금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일치하나요?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저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로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고, 그것에 갇혀 그 사람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답니다. 또한 반대로 남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고정관념이 지나치면, 우리 자신이 생각의 경계를 만들게 되어, 사물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정관념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적어봅시다.

- 그동안 친구에게 가졌던 첫인상과 지금 그 친구를 겪고 나서 그 첫인상이 바뀐 경우
- 또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누군가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경우가 있거나,
- 또는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누군가에게 실수를 하거나 피해를 준 경우 사과하는 내용
- 또는 기타 고정관념과 관련한 나의 경험을 적어봅시다.

이번에도 선생님의 <시범 보이기>가 실려 있다. ‘대안학교’라는 고정관념에 대한 생각을 담은 글이다. 선생님은 이런 글을 참고삼아 ‘5분 글쓰기’를 하듯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 학생들은 다들 부담 없이 열심히 쓴다. 발표 욕구도 매우 높다. 하지만 이번에도 과제 지시문의 내용에 즉하게 쓰다 보니 대동소이한 경우가 적지 않다.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지시문이 모호하면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고 지시문이 구체적이면 그것을 벗어나 창의적인 글을 쓰기가 힘들다. 이번 지시문

도 아이들은 대부분 ‘친구’에 대한 고정관념을 쓰는 것으로만 이해했음 직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글이 주로 친구의 첫인상과 현재의 차이점을 진술한 것들이다. 학생들 탓만은 아니다. 아무리 <시범 보이기>를 통해 친구가 아니라 학교에 대해 쓴 글을 예시했다 하더라도 지시문을 보면 누구라도 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한정하기가 쉽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답답해질 만하면 회한하게 물꼬를 터서 선생님이 원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 주는 친구들이 등장한다. 리얼 버라이어티 쇼라고 한 것이 결코 농담만은 아니다. 그런저런 발표가 이어지고 나서 한 여학생이 발표한 글이다.

우리 사회에서 내가 생각하기로 가장 큰 고정관념의 대상자는 왼손잡이이다. 왼손잡이라 하면 특이하고 남다르고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느낌을 받는 게 대다수이다. 하지만 그들은 다르지 않다. 모두 우리와 같다. 나도 왼손잡이였다가 지금은 양손잡이이다. 양손이 편하기도 하다. 숙제를 하면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다. 내 친구 ○○도 왼손잡이이다. 친구들이 ○○를 보다가 “어라 너 왼손잡이야?”라고 하면 ○○은 태연하게 “응.” 이라고 말하지만 입 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왼손잡이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내지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다.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여기까지 왔으니 잘 마무리가 된 셈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구체적 경험 자체만으로 끝났는데 반해, 이 여학생 덕분에 한 단계 일반화된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 정리

어느덧 90분이 지나고 종이 울렸다.¹⁰⁾ 선생님은 급히 정리에 들어간

10) 이번 수업은 90분 정도는 되어야 수업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케이스였다. 대안학교이기

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필자는 한 가지 커다란 아쉬움이 있었다. 고정관념이란 상대적인 것이 아닌가?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는 것조차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지 않았는가? 고정관념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마디로 고정관념의 양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필자는 고정관념을 너무 편협하게 다룬 점을 이번 비평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했었다. 하지만 고정관념에 관한 자료를 섭렵하다시피 한 프로듀서가 그것을 지나쳤을 리 있는가? 수업은 이렇게 끝이 난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어 고정관념은요...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학생 :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란 건요, 우리 뇌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생각하려는 생각의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을 때 기존의 가치, 기존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대단히 효율적인, 사실은 고정관념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정관념의 기준, 내 생각의 기준이 굳어지거나 잘못되었을 때 사실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한 번의 수업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에, 모든 생각은 결국 내 마음의 경계에 해당하는다. 내 마음에 선을 긋고 먼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변은 아니지만, 지적하고자 한 모든 유의 사항이 깔끔하게 처리되면서 수업이 마무리되었다. 고정관념의 양면적 가치는 물론, 지식이 변화해도 태도가 쉽게 변화하지는 않는다는 대목에 이르기까지, 그는 섬세하게 마감 작업을 하며, 끝으로 슬쩍 자신의 신념 체계를 제자들에게 전하기까지 한다. 앞서 삶의 문제를 긴 시간 속에서 생각해 보라거나, ‘종이 속에

서도 구름을 볼 수 있다.’라는 뒷낙한 승려의 인식론을 즐겨 인용하는 걸 봐도 알 수가 있거니와, 그는 ‘마음’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 고정관념이란 주제를 다룬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고정관념이란 결국 마음의 집착이니까.

5. 수업에 대한 쟁점과 논의 사항

(1) 자료의 선택과 배열

프로듀서의 생명은 자료의 확보와 편집에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 주제는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많아서 문제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전반부에 지나치게 착시에만 한정된 것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고정관념의 ‘관’이 ‘볼 관(觀)’이란 점에서 시각적 자료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동일한 활동을 반복하느니 그럴 것이면 차라리 동영상 자료 다음에 마그리트의 그림 등을 소개함으로써 훨씬 다양하게 꾸며보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자료의 선택보다 더 아쉬운 것은 자료의 배열이다. 도입에서는 유사 자료를 반복하는 아쉬움, 그에 이어 텍스트 읽기를 통해 심화해 나가는 것 같더니, 느닷없이 ‘산토끼’와 성냥개비가 등장한다. 그것이 아무리 사실적 사고에서 창의적 사고로 이행해 가는 것이라고 연출자의 의도를 읽어준다 하더라도 텍스트까지 읽은 상태에서 그런 IQ 문제 같은 것을 푸는 것은 활동의 단절 또는 회귀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도입부의 원통 활동 대신 이것을 하는 편이 사고의 활성화 측면에서나 <어린 왕자>와의 연계성을 살리는 면에서나 유익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쪽으로 분위기가 전개되었던바, 그것이 결국 최종 활동 단계인 성찰적 글쓰기 활동에서도 심화와 내면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싶게도 여겨진다. 아울러 고정관념의 긍정적 측면을 도입에서 다루어야 할지 마무리에서 다루어야 할지

도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요컨대 통일성, 일관성, 구심력, 수렴 구조와 같은 기준과, 다양성, 유흥성, 원심력, 발산 구조와 같은 기준을 함께 만족시키고 아우를 수 있는 편집의 지혜, 수업의 구조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2) 사고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

고정관념의 양면성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착시와 관점의 차이로 나누어 보는 것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는 고정관념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문제 삼고자 한다.

고정관념의 극복, 또는 발상의 전환이란 말을 우리는 익히 들어왔다. 그러나 그 말이 사고의 자유, 개성의 자유 쪽으로만 작동되는 말은 결코 아니다.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력 같은 말들이 그렇게 순진하지만은 않는 것이다. 고정관념만이 사고의 경계를 위한 것이며, 그것만이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창조라는 말이 가장 극적으로 들리는 곳은 이제 예술이 아니라 기업이다. 이른바 창조 경영이란 이름 아래 수많은 어록들이 인구에 회자되는 판이다. 뿐만 아니라 발상의 전환, 창의적 사고, 긍정적 사고, 이 모든 것이 최근 베스트셀러 목록을 석권하는 이른바 성공학 도서들의 키워드이다. 활동지에 인용된 바 있는 지글러의 책도 마찬가지이다.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를 간 신발 세일즈맨의 이야기, 절에 가서 빗을 파는 판매원의 이야기 따위도 언제나 강조하는 것은 고정관념의 타파, 인식의 확장, 인식의 전환 같은 것들이다.

이처럼 고정관념의 극복이란 문제가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대개 인식의 문제에만 그칠 때는 도구화되기 쉽고, 이를 정치나 윤리의 문제로 확장할 때는 그 자유함을 잃고 계몽성이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수업이 인식론에서 출발하여 윤리학 혹은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로 나아간 것에 대해 필자는 당연하면서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다만 고정관념의 양면성을 말미에 언급하거나 모든 것이 마음

탓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극복해야 할 고정관념과 존중해야 할 고정관념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고 토론하도록 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하다.

물론 성공을 위한 창조적 사고가 결코 불필요하다거나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창의성이 소수 특정인들의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며 누구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는 선의의 기대가 혹시 또 하나의 새로운 억압을 강제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봄직하다. 기발함만이 미덕은 아닌 데도 아이들은 저도 모르게 기발함을 추구하고 개그맨처럼 그것이 인기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기발한 문제 풀이는 정공법이 아니다.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것 역시 상식을 통해 상식을 넘어서는 방식을 취해야 옳다. 그런 방법론이 결여되면 항상 반짝이는 아이디어만 기대하다가 절망하고 만다.

우리가 국어교육 또는 인문교육에서 기대하는 창의적 또는 문제 해결적 사고와 글쓰기는 이런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늘 아래 새로운, 기발한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첨단 의 새로운 발명 발견을 동원하는 것도 아닌, 건전한 상식의 회복 말이다. 그것을 어떻게 논리화하고 조직하여 언어로 표현하는가? 그것이 목표요, 거기까지가 주어진 몫이 아닐까?

III. 결론

90분에 걸친 중등학교 국어 수업에 대한 비평이 이와 같다. 이것이 과연 기술, 해석, 평가가 잘 이루어진 범례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수업 비평을 위해 들인 공이 시나 소설 몇 편 비평할 때보다 훨씬 컸다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만큼 부담스럽고 힘이 든다. 하지만 우리 학교 현장 수업이 진작 이만한 비평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더라면 학

계는 물론이고, 교사와 예비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안목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고 다양해졌을 것이다. 학계는 교육 내용에만 주목했지 교육 현장에 눈을 돌리지 않았으며, 현장 교사들 역시 교육 내용만 공부했지 수업 자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다. 국어과 교사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훌륭한 국어 수업을 위해 ‘국어’만 공부했지, ‘수업’은 본 적도, 배운 적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것이 수업인데, 그것을 대학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도 보고 배운 적이 없다는 것, 이런 상태에서 수업 전문성 신장이란 헛된 구호에 불과해질 따름이다.

교사 연수에서 필자는 이 수업 동영상 자료와 이 수업 비평문을 함께 보면서 교사들 스스로 이 수업에 대한 비평문을 제출해 보라고 권한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타자의 수업을 공유하면서 이런 비평 활동을 지속해 보라고 권유한다. 교사들은 수업을 잘하길 희망한다. 교원 평가 때문이 아니라 수업이 자신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부단히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길 원하고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수업 비평은 수업의 절차나 양적 지표에 무관심한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매이지도 아니한다. 수업 비평의 주된 관심은 형식에 무관심하거나 내용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법적으로 형식화된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수업 비평은 교사에게 교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무관심하지는 않지만 교사의 수업을 통해 오히려 비평가와 독자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도 중요한 관심을 갖는다. 수업 비평은 해당 교사에게 처방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수업을 공유한 많은 교사들로 하여금 수업을 보는 안목을 공유하게 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갖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수업 비평은 객관화와 일반화에 무관심하지는 않지만 주관과 상호주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논쟁적인 성격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동일한 수업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비평과 논쟁이 이어지길 희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본 논문은 2010. 10. 31. 투고되었으며, 2010. 11. 9. 심사가 시작되어 2010. 11.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영천(1997), 『네 학교 이야기 : 한국 초등학교의 교실 생활과 수업』, 문음사.
- 김승현·박재현(2010), “국어 수업 도입부의 소통 전략 연구”, 『국어교육연구』, 서울
대국어교육연구소.
- 김은성(2009), “문법 교수학습 방법 구체화를 위한 수업 의사소통 양상 연구”, 『국어
교육학연구』, 국어교육학회.
- 노은희 외(2006), “수업 평가 매뉴얼과 국어과 수업 평가 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ORM 2006-24-3.
- 박태호(2008a), “직접 교수 읽기 수업 동영상 평가”, 『한국초등국어교육』 36, 한국초등
국어교육학회.
- 박태호(2008b), “수업의 명료성과 국어 수업 사례”, 『국어교육』 125, 한국어교육학회.
- 박태호(2008c), “좋은 국어 수업의 보편적 조건과 수업 사례”, 『청람어문교육』 37, 청
람어문교육학회.
- 박태호(2008d), “개선해야 할 초등 국어수업 문화와 교사 대응”, 『청람어문교육』 38,
청람어문교육학회.
- 서근원(2003), 『수업을 왜 하지?』, 우리교육.
- 신헌재(2005), “국어 수업 관찰과 비평의 방향”, 『한국초등국어교육』 27집, 한국초등
국어교육학회.
- 이재승(2005), “국어 수업 평가의 기준”, 『초등국어교육연구』 5호, 대구경북초등국어
교육학회.
- 이정숙(2003), “초등학교 국어수업 평가 항목 설정에 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27,
청람어문교육학회.
- 이정숙(2005), “문화현상으로서의 국어수업 비평”, 『한국초등국어교육』 29집, 한국초
등국어교육학회.
- 이종각(1995), 『교육인류학의 탐색』, 도서출판 하우.
- 이주섭(2002), “국어과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 좋은 수업 사례에 대한 질적 접근”,
『학교교육내실화방안연구(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혁규 외(2007), 『수업, 비평을 만나다』, 우리교육.
- 이혁규(2006), “수업 보기, 수업 읽기”, 수업을 보는 안목에서 시작하는 수업 개선, 우
리교육아카데미자료집, 우리교육.
- 이혁규(2008), 『수업 비평의 눈으로 읽다』, 우리교육
- 정재찬(2001), “질적 연구의 국어교육적 의의”, 제15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국어교육
학회.

정재찬(2004), 『문학교육의 사회학을 위하여』, 역락.

정재찬(2006), “국어 수업 비평론”, 『국어교육학연구』 25집, 국어교육학회.

조영달 편(1999), 『한국교실수업의 이해』, 집문당.

조영달(2000), “한국 교과 교실 수업 연구(질적)의 반성과 지향—미시기술적 수업 연구를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제4권 제1호, 한국교과교육학회.

조용환(1999), 『질적 연구 :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최지현(2005), “중등 국어과 수업 평가의 한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24집, 국어교육학회.

<초록>

수업 비평적 관점을 통한 중등 국어 수업 사례 연구

정재찬

교육 현장의 핵심은 교실, 곧 수업이다. 수업 연구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수업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그에 앞서 수업 현상 그 자체를 충실히 관찰·기술하고, 분석·해석하며, 그에 따라 평가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먼저 수업을 보는 관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수업은 효율성만이 관건인 것은 아니다. 수업에서 효율성만을 중시할 때, 수업은 오로지 투입-산출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전락적이고 공학적인 관점이 우세해질 따름이다. 교실은 공장이 아니며 교사 또한 공원이 아니다. 오히려 교사는 예술가와 흡사하며 수업은 예술 텍스트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업을 예술의 한 형태로 볼 때, 아울러 수업 연구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 행위를 기대할 때, 그리고 교과 교육 내용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하길 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수업 비평이란 장르의 필요성과 마주치게 된다. 수업 비평은 교육 텍스트이자 일종의 문화 예술 텍스트로서의 수업 텍스트를 대상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 아울러 예술과 과학의 양면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술과 해석과 평가를 주축으로 행하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글쓰기라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은 교과교육 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교실이라는 살아 있는 맥락 속에서 그것이 어떤 교수학적 변환 과정을 거치는지에 관해 질적인, 또한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논의를 펼침으로써 현장 연구 및 현장 컨설팅의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장 수업 개선만이 아니라 현장 연구를 포함한 국어교육 연구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수업 비평의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한 하나의 시도로써, 고정 관념을 주제로 다룬 대안 중학교의 현장 텍스트에 관한 수업 비평을 행하였다.

【핵심어】 질적 연구, 예술로서의 수업, 수업 비평, 국어수업비평

<Abstract>

A Case Study on Korean Teaching Classroom in the Middle School

Jeong, Jae-chan

The essence of education can be found in the classroom which is the field of our daily teaching. Recently the concern about classroom teaching and the field studies for action research are increasing. Most of all, we should pay attention to classroom in order to observe, describe, analyze, interpret, and evaluate it sincerely.

Efficiency is not the only key of teaching. If we value the efficiency only, classroom teaching would tumble down as a mechanical process which focuses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and output. But classroom is not a factory and the teacher is not a factory worker. Instead, the teacher has a very resemblance with the artist, and the text of class can be regarded as an artistic text.

If we regard the classroom teaching as a kind of art, expect the alternative to reduce the burden of qualitative study and to be based on the professional knowledge about the subject matter, we would meet the classroom teaching criticism. It could be defined as a critical and creative writing based upon the description,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of the classroom teaching text. It regards the educational text as well as a sort of cultural, artistic text. Particularly, it pursues to be as an action research and a field consulting by studying the quality of classroom teaching concretely and practically with a fully vivid context.

This paper tried to practice a kind of classroom teaching criticism in the middle school. This is not only a case study but also a study to find

out what the better classroom teaching is. So, I watched, described, analyzed, and evaluated the Korean teaching classroom focused on the subject matter namely Stereotype.

【Key words】 qualitative study, classroom teaching criticism, Korean teaching criticism